

성명	이현준	수험기간	~2024.07.
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공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키워드	사시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61기 변리사 이현준입니다. 4시로 합격하는 순간까지 합격을 항상 꿈꿔왔지만 합격수기를 작성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 했었는데, 월비스에서 제공해주신 좋은 기회로 이렇게 제 수험생활을 공유해드릴수 있어 기쁩니다. 생동차 혹은 수석합격과 같이 화려한 타이틀은 아니지만, 오랜 기간 고민하고 공부한 만큼 수험생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기득 이상의 수험생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기를 작성하겠습니다.

1차 공부

합격년도	산업재산권법	민법	자연과학	평균
58회1차	75	95	67.5	79.17
60회1차	85	72.5	67.5	75

【시험 직전 3개월】

제대로 준비를 하지 못해 시험삼아 응시한 시험을 제외하고도, 한 번에 시험을 합격하지 못 했었습니다. 여러 번의 1차 시험 응시를 통해 합격한 입장에서, 1차 시험 합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간은 시험 응시 전의 3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준비했던 1차 시험에서 합격하지 못 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코로나로 인해 1차 시험일정이 3개월 밀렸었는데, 해당 기간에 학교 졸업을 위한 졸업작품과 수업을 병행했기 때문이었다고 느꼈습니다.

1차 시험에서 필요한 암기는 2차 시험보다는 상대적으로 알고 넓은 범위를 답을 고를 수 있을정도로만 요구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양 자체는 자연과학까지 포함하여 정말 방대합니다. 시험 직전에 방대한 양을 머리속에 최대한 정리하고 눌러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양을 늘리는 행위에 관하여】

2차 시험에서조차 많은 강사님들이 양을 늘리는 행위를 지양하라고 강의하시고, 제 의견도 같습니다. 하물며 1차 시험에서 본인이나 보는 책에 빠진게 있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다른 책을 뒤지고 단권화를 시도하는 것은 정말 시간낭비임을 말씀드립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다하여 자연과학에서 대학 교재를 뒤져서 문제를 풀어보거나, 민법 논문을 찾아보고 질문하는 등의 행위는 합격에서 그 시간만큼 멀어지는 공부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강사님들이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을정도의 지식은 강의와 책에 담아주시니, 양을 늘리는 행위는 최대한 지양하심이 좋겠습니다.

【과목별 공부법】

☑ 민법

1) 개요

1차 과목 중 가장 양이 많고, 그만큼 가장 많은 시간투자를 해야만 하는 과목이며, 가장 안정적으로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제 수험기간동안 민법 90점 이상 고득점자는 항상 있었고, 저도 민법에서 95점을 받아서 1차를 합격했던 만큼 1차 합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 생각합니다.

2) 강의

기본강의, 최신판례강의만 수강하였으며, 객관식 강의는 따로 듣지 않았습니다. 민법의 정석을 기본서로 공부하였고, 객관식은 포인트 민법 객관식 책을 사용하였습니다.

3) 회독 비중

당시에는 기본서와 객관식의 회독 비율을 1:2로 둘 정도로 객관식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단원별 회독을 하지는 않았고, 기본서의 1회독이 끝나면 객관식의 회독을 시작하는 식으로 회독을 진행하였습니다. 객관식 책이 워낙 두꺼워, 시간이 기본서 회독의 2배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시험 3달 전부터는 객관식 회독 중에 다시는 안 봐도 될 것 같은 문제 혹은 지문에 크게 X표시를 해서 넘어가면서 회독 속도를 높였습니다. 해당 작업을 통해, 시험 하루 전에는 객관식 전체 회독을 6시간 내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양을 줄여 나갔습니다.

4) 민법 객관식 공부방법의 핵심

민법의 객관식을 공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의문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시중에서 많이 구매되고 있는 객관식 문제집의 설명은 이미 충분히 자세하며, 이해가 가지 않는 지문이나 문장이 있는 경우 강사님을 통한 질문으로 해소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민법 객관식 문제집에는 변리사 시험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닌만큼, 변리사시험의 시험범위를 넘어서는 지문도 있으며 우리 시험의 출제경향에서는 완전히 벗어난 지문 또한 수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변리사시험의 민법 강사님들은 비중있게 강의를 하지 않고, 저희의 머리에는 완벽하게 지문을 이해할 지식이 들어있을 수 없습니다. 가끔 공용 질문방에 올라오는 질문들을 보면 정말 필요없는 지식을 머리에 넣느라 꼭 필요한 지식을 놓치거나 오인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민법의 양이 정말 방대한 만큼, 쓸데없는 지식까지 머리에 넣을 시간은 없다는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 산업재산권법

1) 개요

산업재산권법은 매해 난이도 변화가 너무 심하고, 문제 유형도 대비하기가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이스가 되는 출제 범위는 조문, 판례이기 때문에 합격이 가능할 정도의 점수를 획득 하는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믿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2) 강의

특허, 상표법은 기본강의에 더해 판례강의를 수강하였고, 디자인보호법은 기본강의만 수강하였습니다. 최신판례강의는 3과목 모두 수강하였으며, 다른 강의는 따로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3) 회독

문제 수가 20/10/10 문제로 특허법 문제의 비중이 5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법 기본서 회독에 의식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객관식 문제집은 따로 회독하지 않고 각 과목의 기출문제집을 반복적으로 회독했기 때문에, 객관식 회독시간은 상대적으로 기출문제가 많은 특허법이 자연스럽게 50%정도로 맞춰졌었던 것 같습니다.

4) 산업재산권법 공부방법의 핵심

저는 1차 산업재산권법의 핵심은 조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판례도 중요하지만, 판례공부는 일정수준을 넘어서면 맞춰야 하는 문제는 기본으로 다 맞추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시험점수를 받아 보았을 때, 판례를 꼬아서 낸 문제를 틀렸을 때보다 조문을 그대로 낸 문제를 틀렸을 때.. 그때의 자괴감은 차원이 다릅니다.

타 과목보다 조문을 그대로 내는 문제가 많은 만큼, 괴롭더라도 조문을 정확히 암기하는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서 조문문제만 큼은 절대 틀리지 않도록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조문문제를 전부 맞고, 판례문제를 남들만큼 맞으면 산업재산권법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점수를 획득 가능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조문을 암기가 빈 곳마다 손으로 베껴 써보며 하루 산업재산권법 공부의 시작과 마무리에 조문을 빠르게 읽는시간을 따로 할애하는걸 추천할 정도로 조문 암기의 중요성을 높게 평가합니다.

☑ 자연과학

1) 개요

자연과학은 아마 대부분이 공대생인 이 시험에서도, 대부분에게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연과학 공부 전략은 '적당히'였고, 해당 공부방법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강의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모두 기본강의와 객관식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도 기계공학을 전공하였기에 그나마 물리에는 조금 자신이 있었으나, 혼자 공부하는것보다 강의를 듣는게 그나마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는 길이라고 생각하여 전 과목을 다 수강하였습니다.

3) 회독

처음 2~3번까지는 이미 맞았던 문제도 다시 풀었으나, 의미가 없이 계산에 시간만 걸린다 생각하여 헛갈리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다시 풀지 않았습니다.

4) 자연과학 공부방법의 핵심

일단, 어떤 과목이라도 완전하게 포기하는 과목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하는 특정 과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목에서 못해도 3문제는 풀어서 맞출 수 있을 정도로는 공부할 수 있으며, 그 정도의 기본개념을 학습하는 데에는 민법 등의 타 과목에서 3문제를 더 올리올리는 것 훨씬 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화학은 어느정도 버리는걸 기본으로 했습니다. 자연과학도 객관식 공부에 있어 기출문제를 최우선으로 학습하였는데, 물론 물리/생물/지구과학도 어렵게 나온 해가 있었지만 화학에서 어렵게 나온 해의 기출문제를 푸는데에는 1개년도의 문제를 푸는데 1시간이 넘게 소요되고는 했습니다. 같은 문제를 5번 풀어도 그만큼이나 시간이 걸린다면 어차피 시시험에 마주했을 때 절대로 풀지 못한다고 생각했고, 다른 자연과학 과목에 들이는 시간보다 더 큰 시간은 절대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화학은 1차시험을 2번 합격하는동안 6개를 맞은게 최고 기록이었지만, 그만큼 다른 과목에서 점수를 더 잘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3시의 1차 공부법】

저는 3시 때 1차 시험을 한 번 더 합격했었는데, 아무래도 2차 시험 발표일로부터 4달 정도의 기간밖에 없는 3시때의 공부 방법은 처음 1차를 합격했을 때와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법은 김동진 강사님의 중급강의를 수강한 후 민법공방연습을 회독하되 개념을 다시 빈틈없이 외우기 위해 객관식보다 기본서의 회독 비중을 80%정도까지 높여서 공부하였고, 산업재산권법은 판례공부는 아예 하지 않고 조문만 암기하고 기출만 적은 횃수로 회독하였습니다.

다만 자연과학은 방심하다간 과락도 나올 수 있는 과목인 걸 알기에, 다시 전 과목의 기본강의를 수강하였고 기출문제를 풀며 막히는 부분은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도 1차를 한 번에 붙지 못했던만큼, 3시의 짧은 준비기간동안 합격이 가능할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이미 한번 붙어서 붙는 방법을 알고있는 객관식 시험의 합격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예전에 붙었던 감각을 되찾는 것이 삼시 1차의 키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2차 공부 #1

【서론】

응시시기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평균
동차	53.33	38	23.66	38.33
기득	52	43.66	65	53.55(1점대 탈)
삼시	54	52.33	56.33	54.22(0.1탈)
사시	51	60	62	57.66(합격)

2차 시험을 4번이나 치르는 과정 동안, 스스로의 점수와 답안에 대해 정말 많은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저는 동차 수험기간에 1차 발표기간동안 1차를 떨어진줄 알고 취업을 준비했기에,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동차기간에 대해서는 크게 드릴 말씀이 없으나, 그 이후에 했던 고민과 공부방법들에 대해서 아래에서 서술하겠습니다.

시기별 수험생활에서는 간략하게 수강한 강의나 진행한 스터디만 서술하고, 무조건적인 합격을 노리기 위해 했던 고민과 공부 방법은 과목별 공부방법에서 서술할 테니 필요하신 부분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동차시기 수험생활】

상술한대로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으나, 민사소송법 기본강의와 사례강의는 수강을 마쳤습니다. 다만, 제대로 된 회독 없는 강의 수강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13페이지 정도밖에 쓰지 못한 특허가 50점대의 점수를 받은 것인데, 해당년도의 특허 시험이 1차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풀 수 있도록 출제되고, 계산문제에 높은 점수가 배정되었던게 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기득시기 수험생활】

☑ 강의

기득때는 전업으로 공부하였기에, 이창한 교수님의 민사소송법 심화강의 / 박형준 변리사님의 특허법 기본강의, 판례강의, 사례강의 / 한경훈 변리사님의 상표법 기본강의, 판례강의를 모두 수강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특허법, 상표법의 기본강의는 필수적인 강의라고 생각하나, 요즘은 기초GS의 강의 횟수를 늘리시는 방법으로 기본강의를 녹여내시는걸로 알고 있어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맞다고 안내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1차 시험때 산업재산권법을 공부했다고 하더라도 2차 시험을 보기 위한 리갈마인드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시한번 개념을 정립하는 강의를 듣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 스터디

기득 수험기간 중 12~1월에 이창한 교수님의 사례 민사소송법을 문제만 보고 답안지를 시간에 맞춰 작성하는 스터디를 하였으며, 2월에는 민사소송법 기출문제를 시간을 재고 작성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산업재산권법은 상표법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 외에는 따로 스터디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우 사실상 제대로 된 풀 답안을 처음 전범위에 걸쳐서 매주 작성하는 계기가 스터디였는데, 동차 혹은 기득에게 이러한 스터디는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시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써야 될 지 모르겠다, 막막하다' 라는 감정은 없는데, 처음 답안지를 작성해보는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연습과 방향설정 등에 도움이 됩니다.

【3시 수험생활】

☑ 강의

3시는 1차 합격 후 2차까지 시간이 너무 없고 재수강이 필요하다 느낀 개념 강의도 없어, 아무 강의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 스터디

기득때 상표법 점수가 낮았기에 먼저 합격한 스터디원에게 들은 조언을 통해 상표법 주요 판례를 스터디원이 각자 분석하고, 해당 판례에서 출제된 GS문제에서의 주논점/ 기출여부/ 하급심에 유의미한 판시가 있었는지 여부등을 공유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스터디가 제 상표법 실력 향상에 있어서 큰 부분을 차지했었다고 느낍니다. 1차 시험때 특허법보다 상표법 비중을 낮게 두었던 버릇을 기득때까지 그대로 유지하여, 판례를 볼 때 소홀하게 공부했던 것이 기득까지 상표법 점수가 낮았던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이 된 적이 있는지 혹은 하급심 판례가 중요한지 살펴보는것이 실력향상에 큰 의미가 실제로 있었나를 떠나, 강제로라도 자신있던 과목에 대해 자신감을 끌어올려줄 수 있었던 부분이 컸습니다.

통상 기득때는 합격을 기대합니다. 불합격한다면 어느 한 과목의 점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것이 보통이므로, 해당 과목에 대한 자신감을 위해서라도 강제로 공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특허/상표를 매일 일정분량 암기하고 하루 30분씩 서로 암기한 부분을 말하는 전화스터디도 추가로 진행하였는데, 기득때보다 특허/상표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4시 수험생활】

☑ 강의

4시 때도 개념 강의를 다시 들을 필요는 없다 느껴, 아무 강의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 스터디

3시 때의 경험으로 전화스터디가 굉장히 효율이 높다고 느껴서, 이번에는 민사소송법 전화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제 경우 통합민사소송법으로 공부하였는데, 전화스터디를 진행하며 너무나도 방대한 양의 책을 반복적으로 회독하다보니 무의식적으로 계속 놓치고 지나갔던 부분을 찾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만족스러웠습니다.

민사소송법은 같은 판례, 같은 사안포섭을 하더라도 더 많은 양을 정확하게 적어서 분량을 늘리는게 유의미한 점수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정설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민사소송법의 페이지 수가 너무 많아서 전화스터디를 진행하는게 쉽지만은 않았지만, 입으로 빠르게 읊을 수 있을정도로 암기강도를 높여둔 것이 분명 실력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GS 일정 때문에 중간에 비는 시간에는 집을 가는 대신 근처 스터디카페에 모여서 GS를 수강하는것과 같이 풀 답안을 작성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집에 가면 공부를 못 하는 스타일이어서, 해당 스터디를 통해 주말에 최소 2개의 풀 답안을 작성한게 시험 직전까지 감각을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차 공부 #2

【GS 무용론에 관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하다보면, GS무용론에 대해 한 번쯤은 듣게 됩니다. '누구는 GS에서 등수가 안 나왔는데 합격했다더라', '누구는 맨날 상위권인데 불합격했다더라' 등의 얘기를 듣다보면 내가 GS를 수강하고 모의고사를 풀어보는게 맞는건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깁니다.

제가 주변에서 두 자리수의 표본으로 확인한건, 적어도 GS에서 전과목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는 사람은 매우 높은 확률로 당해년도 시험에 합격한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은 '꾸준히 유지' 입니다. GS를 8회차동안 수강하게 되면, 사실상 출제가능한 논점 중 중요논점의 반 정도는 모두 문제로 접해보게 되며 짱돌 논점또한 접하게 됩니다. 남들에게 짱돌이 아닌 논점이 나에 게만 짱돌이라면 개념이 부족한 것이고, 남들이 수려하게 쓰는 중요논점에서 나만 점수가 낮은건 연습이 부족한 것입니다.

저희 시험은 1년에 기회가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간중간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많지 않습니다. GS등수가 높으면 무조건 합격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전과목' 상위권을 유지한다면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GS 등수가 꾸준히 낮거나, 위아래로 크게 요동친다면 자신을 다시한번 점검해야한다는 신호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대형 GS에서 전과목 20~30프로 안쪽으로 8회차 모두 들어온다면 합격을 기대하며 공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안지학에 관하여】

2차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과 강사님들은 답안지의 큰 틀이 판례, 사안포섭임을 한 명도 빠짐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머리속의 지식을 줄글로 표현해야하는 답안지의 특성상, 같은 판례를 적고 같은 결론을 내렸더라도 답안지의 분량, 내용에 따른 점수는 천차만별로 벌어지게 됩니다.

하기할 과목별 공부방법에 제가 답안지를 작성한 과목별 방법을 서술하겠지만, 저는 제 수기를 읽어주실 수험생들이 제 답안지 작성방법을 그대로 답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훌륭하신 수많은 강사님들이 본인과 고득점 합격자들의 답안지 작성방법을 취합하여 강의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방법을 과목별로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어차피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답안지를 작성할 때 자신만의 습관, 생각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해당 부분이 우리 시험의 채점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머리 속에 지식이 충분하더라도 불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는, 특히 장수생일수록 본인 스스로의 답안지를 깊게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시때 0.1로 떨어지고 나서 하루도 빠짐없이 든 생각은, '도대체 내가 왜 떨어져야 하나?' 였습니다. 기본서를 보거나 판례집을 봐도 처음보는 개념이나 헷갈리는건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왜 불합격을 해야만 하는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쉽게 불합격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도 강사님 혹은 합격자 답안과 똑 같은 내용을 적은 것 같은데 왜 점수가 차이 나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도 상술한 답안지학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4시 때 공부 시간동안, 실제로 책을 회독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을 논점별로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할까 고민하는데 쓸 정도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동차 혹은 기득 수험생의 경우 아직 처음보고 새로 외워야하는 개념이 많은만큼 논점별 답안지 고민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기득 이상이고, 본인의 법 지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꼭 논점별 답안지 작성 방법을 기본서 회독 도중에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시는 하기할 과목별 공부방법에 서술하겠습니다.

【멘탈에 관하여】

다들 정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공부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적극적인 케어 속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계실거고, 혼자 공부하시는분, 주변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시는분, 심지어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틀어박혀서 공부하시는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긴 수험기간동안 멘탈과 건강이 모두 박살난 상태로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는 상황을 겪어봤기 때문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한다는 등의 힘내라는 원론적 얘기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놓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험기간이 길어지시는만큼, 공부를 해야하는 상황인데도 수험 외적으로 압박을 받으실 때가 있습니다. 여자친구와 헤어질수도 있고, 갑자기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질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밤에 한두잔 마신 술이 알코올중독으로 발전할수도 있고, 몸이 안 좋아져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부디 힘든 상황속에서도 자신의 신분이 여전히 수험생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에 3~4시간이라도 절대 공부를 놓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부를 아예 놓아버리는 순간, 그 잊어버리는 지식과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배 이상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방법은 각자 너무 다양합니다. 운동을 통해 극복하실수도 있고, 친구를 만나서 수다를 떨거나 잠시 휴 여행을 떠나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공부를 놓아버리고 1주일이 됐던 2주일이 됐던 쉬어버리는 것은 그 쉬는 기간의 배 이상으로 합격에서 멀어진다는 것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GS를 들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일단 특허법, 민사소송법의 경우 본인의 기본서를 강의하시는 강사님의 GS는 모두 수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요즘은 강사님들이 GS를 A형, B형으로 나누어서 운영하시며 빠지는 논점 없이 출제해주시기 때문에, 따로 다른 강사님의 GS를 통해 보충할 필요도 크게 없습니다. 자신의 기본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을 어떻게 답안지에 풀어내는지 배우는데에는 책을 만드신 강사님의 GS를 수강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상표법의 경우, 저는 자신이 납득 가능한 답안지를 작성하시는 강사님의 GS만 수강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명 같은 판례에 대한 답안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답안을 구사하시는 강사님이 꽤 있다는걸 여러 강사님의 GS를 수강하며 느꼈습니다. 고년차 수험생이 될수록 머릿속에 지식은 더 많이 쌓이기에, 어떤 강사님의 견해가 옳은지를 따져보면 오히려 혼란스럽고 시간 손해를 보게 된다고 느꼈습니다.

제 경우 사시로 합격하는 해에는 김세원변리사님의 GS만 수강하였으며, 의식적으로 다른 강사님의 GS는 구해서 보지도 않았고 수강하지도 않았습니다. 해당 방법이 정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나, 하나의 추천으로 받아들여주시고 같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시다면 시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과목별 공부방법】

☑ 특허법

1) 교재

박형준 변리사님의 준 특허법을 기본서로 삼았고, 타 교재를 통해 보충은 하지 않았으며 필요도 없었습니다. 판례집과 기출 사례집 또한 박형준 변리사님의 교재를 사용하였습니다. 주로 기본서로 공부하였으며, 판례집은 기본서 회독 중 해당 판례에서 같이 설치된 논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하였습니다.

2) 회독 방법

특허법은 책의 두께에 비해, 정말 판례가 너무 많습니다. 또한 주로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어느정도 정해져 있고, 많은 판례에서 소위 '리딩 케이스'라 불리는 판례가 반복적으로 설치됩니다. 저는 회독할 때, 2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잡한 사례와 조치 문제입니다. 많은 수험생이 조치문제를 어려워하고,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침해소송 등 조치가 주로 적히는 문제에서 분명 내내 모르는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생각없이 풀 때마다 계속해서 누락이 생기고 답안지를 작성할 때도 확신을 가지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박형준 변리사님의 GS와 기출에서 출제되는 조치문제를 기본서의 각 단원마다 예시로 삼아, 회독 도중에 계속해서 연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문제를 예시로 답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해 생각이 끝났다면 '출원 중 조치', '출원 완료 이후 조치'등 스스로 가능한 문제를 가정해보며 답안지에 서술할 조치를 반복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처음에는 정말 머리가 아프고, 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진짜 짱돌이 아닌 이상 가능한 조치 문제는 대부분 내가 이미 생각해보고 연습해둔 상황에서 걸리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분명히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판례 문제입니다. 저는 판례가 통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리딩 케이스', '최신 판례'문제의 경우 판례원문을 통해 기본서에 추가로 가능한 논점과 문제 파악방법을 보충해주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본서만 보는 경우 진보성과 관련한 최신 판례에서 기재불비의 논점도 판결요지에 판시된 사실을 알기 힘들수가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읽고 해당 판례의 사실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판례에서 자주 나오는 용어(ex-아르키메데스의 수)를 판례의 키워드로 정리해두고, 추가로 실시된 농치기 쉬운 논점을 판례원문을 통해 보충하고 회독하면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판례를 보충해야할지 감을 잡기 힘들시다면, 박형준 변리사님의 판례강의를 수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판례강의를 들을 시간이 없으시다면, 판례집의 중요도 표시에 따라 학습하시는걸 차선책으로 추천드립니다.

3) 답안지 작성방법

특허 답안지를 작성할 때, '담백함'을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고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특허는 가끔 시험문제에 20점, 혹은 30점 분량으로 최신판례를 그냥 통으로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오곤 하기 때문에, 매우 긴 분량의 판례원문을 통으로 외워야 하는 판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운건 답안지에 그만큼 쓰고 점수를 받고싶은 욕심이 생겨, 판례를 통으로 적어야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례를 너무 자세히 적는 경우가 자주 생깁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통으로 된 판례문제가 아닌 경우 판례를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적으려고 노력하였으며, 대신 문제를 풀었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기 위해 목차를 세분화하여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의 수에 대한 답을 최대한 모두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판례를 문제풀이 이외에 필요한 원문 부분까지 길게 적고 문제의 답은 뭉뚱그려서 대답하는 것 보다, 문제풀이에 필요한 부분만 컴팩트하게 작성하고 답이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하는것이 제대로 된 점수획득이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험에 합격한 61회 변리사시험의 특허법 문제는 굉장히 저배점으로 문제가 세분화되어 있었는데, 각 문제마다 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묻는 질문에 답을 하려고 노력한 점이 득점의 근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답안 복기 후에, 이번 시험에서 40점대 중반을 받은 친구들과 답이 비슷하여 정말 시험을 망친 줄 알았으나 50점대의 점수를 받은 것은 해당 방법의 역할이 굉장이 컸다고 느낍니다.

☑ 상표법

1) 교재

테마특허법 시리즈를 사용했습니다. 사례집은 1번만 풀어보고 다시 보지 않았고, 판례집은 기본서와 1:1의 비율로 회독하였습니다.

2) 회독 방법

상표법의 회독 방법은 상기한 특허법의 회독 방법과 90프로 일치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상대적으로 조치문제보다 판례문제의 비중이 높고 판례 개수가 적은 상표법의 특성 상, 기본서에 있는 대부분의 판례에 상술한 사실관계와 판시의 보충을 모두 해 두었습니다.

30점과 20점을 가리지 않고 한 개의 판례를 통으로 내는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되는 만큼, 해당 판례를 타겟으로 하는걸 문제를 읽었을 때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 점수는 정말 밑바닥을 뚫고 지하까지 떨어지는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판례의 양이 많지 않은 만큼, 어떤 판례가 출제되더라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본인만의 보충방법을 생각하심을 추천드립니다.

3) 답안지 작성방법

기득 시절 상표법을 40초반의 점수를 받으며 불합격을 맛보고, 삼시부터는 사안포섭에 힘을 2배로 주자는 생각으로 답안지를 작성했습니다. 판례암기가 견고해지고 같은 판례를 반복적으로 작성할수록 자동적으로 필속은 빨라지기에, 남은 시간은 모두 사안포섭에 투자했습니다.

사안포섭을 길게 할수록, 읽는 사람에게 피로감을 유발시키는 의미없는 줄글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 싶어, 사안포섭을 최대한 눈에 될 수 있도록 각 항목마다 소목차를 분선했습니다.

예를 들면, 판례에서 "'X,Y,X'로 판단한다"라고 실시하고 사안포섭에서 'X,Y,Z'를 차용하여 풀어내는 경우, X/Y/Z 모두 각각의 소목차로 나누어 빠뜨리지 않고 풍부하게 사안포섭하였음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실제로 사시와 삼시의 시험년 모두 상표법 문제를 풀 때 자잘한 실수가 있었으나, 상대적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상표법은 문제에서 물어보는 판례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캐치하고, 판례와 사안포섭을 적당한 분량 기재하는 경우 절대 합격에 문제가 되는 점수를 부여받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득 수험 불합격의 가장 큰 원인이 상표였던만큼 상표법이 가장 두려웠지만, 원칙에 충실한 답안을 구사하면 충분히 어느정도의 고득점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당부드립니다.

민사소송법

1) 교재

이창한 교수님의 통합 민사소송법을 주 교재로 사용했습니다. 사례 민사소송법과 핸드북도 문제풀이로 사용하였으나, 사례 민사소송법과 핸드북의 경우 삼시부터는 각 1년간의 수험기간동안 1~2회만 회독하고 통합 민사소송법을 다회독 하였습니다.

2) 회독 방법

민사소송법의 회독은 책 두께만 봐도 눈앞이 깜깜하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가장 많은 횟수의 회독을 해야함은 합격자 누구를 데리고와서 물어봐도 이견이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저희 시험의 경우 특히, 상표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민사소송법의 점수가 후한만큼, 민사소송법은 각 논점별로 학설뿐만 아니라 타 과목에 비해 선결논점도 높은 빈도로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민사소송법을 회독하실 때 머릿속으로 해당 논점에서 가능한 문제와 선결논점을 모두 검토하면서 지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간단하게 쉬운 예를 들면,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 가부' 학습 시, 자백 의취, 요건, 철회가부,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구별과 완화 등 해당 논점에서 추가로 같이 적힐 수 있는 논점을 머릿속으로 모두 검토하면서 회독했습니다.

이러한 회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있는 전체의 내용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해도 이러한 작업이 너무 오래 걸리고 힘이 들기에, 그냥 편하게 읽고 외우고 넘어가는 기존의 공부방법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러나 그 욕구를 극복하고 회독 방법에 익숙해지는 순간부터, 저는 민사소송법 문제를 풀 때 답을 틀리거나 문제를 잘못 파악한 적은 있어도 논점을 누락하는 일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혹시 논점누락이 고민인 분이 계시다면, 충분히 시험해볼만한 회독방법이라 생각하기에 추천드립니다.

3) 답안지 작성방법

제가 생각하는 민사소송법 답안지 작성방법의 핵심은, '정확도'입니다. 수험생 중 절대다수가 민사소송법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고득점을 노리기 때문에, 답이 갈리는 경우를 제외하고 합격권에 있는 모든 수험생은 같은 판례를 비슷한 분량을 작성하며,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특허법 문제처럼 사안을 여러 갈래로 쪼개야하는 형식의 문제도 거의 출제되지 않으므로, 고득점자의 답안지를 보면 정말 대동소이합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의 답안지를 채점할 때에는 다른 과목보다 '판례의 정확도', '사안포섭의 깔끔함'이 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 논점이 되는 판례의 키워드가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중요한 논점임에도 불구하고 사안포섭에 대충 녹여쓴 답안지는 고득점자의 답안지와 비교하여 다른 과목보다 더 큰 타격을 입게 된다고 느낍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은 합격수기의 목차를 답안지 작성방법으로 하였으나, 평소 공부에서 정확하게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암기를 열심히 하시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립니다.

마치며

저희 시험은 애당초 진입하는 분들부터 뛰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다들 살면서 자신의 머리가 턱도 없다고 생각해본적이 없기에, 누구나 시작할 때는 생동차, 늦어도 기득 합격을 예상하고 바라며 진입합니다. 그러나 제가 그랬고 제가 본 수많은 수험생이 그러했듯, 실제로 삼시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겪는 스탠다드한 수험기간이며 사시, 오시, 육시 등도 학원에서 고개 한번만 돌려도 몇 명씩 보이는게 현실입니다.

4시로 합격한 제 수기를 이제 막 꿈에 부풀어 민법책을 구입하시거나, 동차가 되신 수험생이 정독해주시지는 않을거라고 생각하고,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험기간이 길어지며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지는 와중에 그래도 합격할 수 있다는 희망이 필요할 때, 제 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힘들수록 혼자있는 편이어서 수험기간 내내 너무 외롭고 힘들고, 세상에 나 혼자인거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합격하고나서 주위에 합격소식을 알리고 축하인사를 들으면서 생각해보니, 길었던 수험기간동안 정말 도움을 주신 분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마치 자신이 합격한 것 처럼 합격소식에 기뻐해주시고 수험기간 내내 응원해주신 부모님께 그 누구보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와중에도 응원해준 동생과, 혹시 수험기간 중 부족한게 있지는 않을까 항상 신경쓰고 마음써주신 친척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제가 잘 되기를 바라셨지만 직접 보지 못하고 발표 한 달 전에 하늘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험기간동안 만난 너무도 감사한 스터디원분들 덕분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험에 합격하신 분들께는 축하한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 아쉽게 합격하지 못 한 분들께는 분명 다음 시험에는 합격할 수 있으니 자신을 가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긴 수험기간동안 제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절 찾아주고 응원해주며 제가 수험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한테 단 한번도 부담을 주지 않았던 친구들에게도 너무 고맙다는 말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생활을 계속해야할지 고민될 때, 시험점수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 고민할 때 등 수험기간 중 마주했던 수많은 고민들을 마치 자기 일처럼 생각해주시고 아낌없는 조언과 좋은 강의, 책을 제공해주셨던 월비스 학원의 강사님들께도 감사인사 드립니다.